

제 11 장사도 행전 Tape #8100

지난 주 우리는 성령님의 지시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성취를 그들과 나누자, 성령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내려 오순절 때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가 있었던 것이지요. 성령님이 이방인에게 임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며, 이방인들도 사실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결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느꼈기에, 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느끼면, 만약 그들이 이방인일 때, 맨 먼저 그들은 유대인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찾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판국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진보적인 출발인데, 이 전체의 일은 박해가 있기 바로 직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설교했으며,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 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8 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증거를 보았는데, 박해가 오자, 그들은 유대 전 지역으로 흩어져 말씀을 가르쳤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설교했기에, 그 결과로 그것의 많은 사람이 믿었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11 장으로 와서, 그것이 어떻게 퍼지는가를 보게 될 것인데, 이는 세상 속으로 이 퍼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변방 저쪽으로 말입니다. 그 장의 끝에서 세상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물론 10 장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죠. 우리가 10 장으로 가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유대인의 전통으로 따지면 그것은 적당한 행동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 점까지 깨닫기를 바라는데, 당시 기독교는 유대인의 한 분파와 같은 정도로, 유대주의의 한 분파였고, 사실 유대주의의 한계 속에서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깨뜨리려는 순간이 성령님에 의해 지시되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1 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 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그들은 심의하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할례를 행한 자들은 그들만이 전통적인 유대인의 믿음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당신은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고, 침례와 할례의 의식을 취해야만 하며, 모세의 법에 복종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들이 베드로를 불러 들였습니다.

그들은 고소하기를, **3 절 “이르되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하거늘,”** 이것이 그들의 고소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사람들이 같이 먹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동이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다는 것으로 여길 때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지의 이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당신이 만약 우리가 함께 모여 음식을 먹는 것을 본다고 합시다. 특히 손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는 문화에서, 그리고 식탁에서 통상적으로 국그릇을 가지고 먹는 곳에서 볼 때, 당신은 통상적인 셀러드 그릇과 소스를 가지고, 보통 편편한 빵 덩이를 취합니다.

관행적으로 약간의 빵을 잡아 뜯고, 그것을 소스에 적셔서 먹거나, 스프와 함께 먹거나 할 것입니다. 손으로 먹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두 번 적서 먹지 말라는 에티켓의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당신이 함께 먹었을 때, 병원균이나 또는 그 어떤 것이라도 진짜 나눌 생각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되는 것처럼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먹고 있는 같은 덩이를 내가 먹는다 뜻으로,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하여, 그것이 나의 조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몸은 그것을 흡수하고, 나의 몸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같은 빵 덩이들처럼, 그것은 또한 당신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워, 같은 빵을 함께 먹는 것처럼 우리는 연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그것에서 그와 같은 도를 보았기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먹는다 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마 9:10-11). 그들은 그 분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불평했습니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죄인이나 세리와 함께 있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보시오! 당신이 그들과 함께 먹었던 말이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가 첫 번째 사람이었지만, 절대 확신을 하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여 그의 행동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 내려고 불렀습니다. 비록 그가 행했던 것을 바르게 변호했을지라도, 사도행전 뒤에 가보면, 아니 실제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가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 내려왔음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오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의 믿는 자와 함께 식사를 했었으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는 자신을 분리시켜 유대인들하고만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불려갔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다 것이 아직은 편치 못했기에, 그 자신을 분리했는데, 결국 안디옥 교회는 분리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면전에서 그를 대항해야만 했고,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형제들이 오기 전에는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으나, 그들이 오자, 그 자신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어려운 느낌을 주었기에, 안디옥의 교회에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음, 그래서, 당신이 먹었다 그 말이죠!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하여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 자 그 당시에, 기록하는 것이 세상의 일들 중에서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양피지를 사용하던 때이므로, 양피지가 매우 진귀하기는 했으나, 거기에 그들의 말들을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는 먼저 사도행전을 쓸 때, 한 양피지에 썼을 것인데, 사도행전의 크기는 30 인치 길이의 양피지에 기록하여 그것을 말렸을 것이므로, 만약 이것보다 길었다면 그것을 다루기가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한된 상태로 보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10 장에서 그 이야기를 읽은 대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기에, 베드로는 같은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이미 이야기했지만, 지금 다시 그것을 거듭하여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허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방인에게 가든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지, 그것은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접점이었고, 누가는 이방인에게 확산되고 있는 구원 받을 기회의 문에 대한 특수한 경험의 중요성을 위하여 그 이야기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단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환상을 보니,”** (하나님은 종종 환상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아브라함, 야곱 사무엘, 엘리사, 나단, 욥,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오바다, 스가랴, 아나니아,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환상을 갖게 하여 말씀하십니다[아비멜렉, 야곱, 요셉, 다니엘, 파라도, 기드온...]. 그리고 가끔 그 꿈은 영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행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칙으로 꿈이 해석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보내실 것입니다. 환상은 꿈과 매우 비슷하지만, 단지 꿈을 꾸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깨닫는 상태였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당신이 깨닫지만 황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황홀함으로 당신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둘러싸여 있기에,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육체적인 세계만큼이나 사실적인 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환상은 영적 세계의 통치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를 둘러싼 영의 통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은사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는 은사를 발견하는 것은 특히, 대언자 엘리사의 대언으로 여러 번 실행되었습니다. 에스겔의 경우, 자기가 본 환상을 대단히 많이 기술했고, 계시록은 요한에게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영의 통치는 때가 없으나, 시간은 물질적, 육체적 물체입니다. 영의 통치에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시간의 물질적 세계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주님의 날에 영에 의해 취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그 모든 것을 묘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영 안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아직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영의 영역 속으로 들어올 때, 시간의 연속 체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보는 것에 대한 수용력에서. 그것이 환상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성령님에 관련한 약속을 하실 때, 그 분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 내 아들과 딸들은 대언을 할 것이며 내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방법들로 사람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황홀함에 빠져, 환상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데 마치 큰 보자기 같고 네 귀통이를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게 이르거늘,”** 여기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고, 황홀함에 빠져 큰 보자기를 보았으며, 네 귀통이를 맨 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6절 “내가 그것을 주목하여 살펴보니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이 보이더라.”**(순회 동물원이네요.) **7절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8절 “내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이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었음이니이다 하니라.”** **9 절 “그러나 하늘로부터 다시 음성이 있어 내게 대답하시되 하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0 절 “이런 일이 세 번 있는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니라.”** **11 절 “그러나 보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있는 집에 이르렀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라.”** **12 절 “성령께서 내게 명하시,”** (베드로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가서 그들과 먹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

계 가라 하시기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래서, 베드로는 여섯 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변명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혐의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래서 그는 증인들을 모두 갖추게 된 것이지요. 13절 “그가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자기가 집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서서 이르되 사람들을 읍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14절 “그가 네게 말씀을 전하리니 그 말씀으로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다 하거늘,”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같이 하시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양쪽에서 일을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믿기는, 그 분은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다. 주님은 고넬료 쪽에도 일하셨고, 환상 가운데 그 분은 그에게, 사람을 읍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보내면, 별명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복음의 길을 너희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주인이 환상을 보았는데, 당신이 알다시피, 우리와 함께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자, 주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관계하셨기에, 그는 반드시 가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분은 양쪽에서 일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게 왔다는 사람들에 대해 약간의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연설에 대해 실패했다는 것은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나는 숙고하여 그것을 취합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16절 “그 때에 내가 주의 말씀 곧 그 분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님의 경험과 성령님의 침례를 동등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 침례와는 엄격히 구별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한 말씀을 본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게 된 것입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거역하겠느냐? 하더라.” 자, 당신들이 나를 심의에 불러들여, 내가 이방인에게 갔다는 이유로, 당신들이 나와 다투고 있는데, 보시오, 성령님께서 나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거역하겠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날 비난하지 마시오! 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구원과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져다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당신들이 무엇이라 하겠소? 종종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들을 상담하려고 하면, 그들은, 가끔 주님께서 전체 일을 끝내도록 자기에게 보여 주셨다고 하거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말하곤 합니다. 내 말은, 당신이라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심한 적이 많았으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지시하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침묵을 지켜야만 하며, 그 일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기다려, 그 조각들을 주우러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봐요, 하나님이 날

보내셨고,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단 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던 말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새로운 절로 가 봅시다. **19 절 “이제 스테반으로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러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퍼뜨리는데 핍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노트하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 베니게, 키프러스,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단지 유대인에게만 전했을 뿐으로,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유대인의 경향이 전부였던 것이지요.

20 절 “그 가운데서 키프러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니,”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은 키프러스와 구레네에서 온 자들인데, 그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었으니, 이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었던 어떤 것을 뛰어 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당시 안디옥은 세상 가운데서 큰 도시로서, 사실상 세상에서 세 번째로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첫째,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그리고 안디옥이 그 당시 세상에서 세 번째로 중요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그 당시에 있어, 지금 세상의 라스베가스처럼 알려져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최악의 도시란 말인데, 쾌락의 도시, 쾌락이 밤낮으로 결코 끝임이 없는 도시가 바로 그 곳이었습니다. 나이트 클럽과 모든 종류의 오락들이 있었겠죠? 다피니(Daphne) 여신의 그리스 신전이 도시 외곽의 월계수 수풀 안에 있었는데, 전설에 의하면 다피니는 아름다운 젊은 여자로서 아폴로신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폴로는 그 여자를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녀를 잡은 듯 했으나, 그녀는 아폴로의 추격을 피해 월계수 나무 사이로 숨어들어 갔

기에 구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신전을 월계수 수풀 한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신전의 여제사장들은 매춘부였기 때문에 수풀 안에서 매춘과 같은 것으로 다피니를 숭배했는데, 이것은 방종한 그들의 많은 숭배 중에 하나였습니다. 방종함과 상스러움으로 알려진 그 도시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성경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흥미로운 일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준 키프러스와 구레네에서 온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실제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는 곳, 여기에 위대한 일이 있었고, 우리는 느린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교도 도시이지만, 극히 중요한 도시인 안디옥에 알려지지 않은 개인들에 의해 이방인에게 공개적인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21 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곳으로부터 나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22 절 “그 때에 이 일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 음, 바나바는 그의 소유를 팔아 교회의 금고에 돈을 넣은 사람으로 4 장에서 처음 언급되고, 사도 바울이 회심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교회는 그를 교체에 포함시키기를 망설였던 때에서 나중에 그가 이야기됩니다. 바울이 제사장을 위해 범죄 사실을 캐내는 형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으나, 바울을 데리고 가서 다마스쿠스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나누는데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말했던 자도 바나바였고, 그의 회심은 진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선동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들이 바울을 멀리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바나바는 그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는 일을 동행했으며, 그곳에서 바울은 배를 타고 다소로 돌아왔습니다. 이 변함없는 바나바는 사도도 아닌, 단지 형제인데, 참 아름다운 형제였다고 봅니다. 권위의 아들, 혹은 위로의 아들인, 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하여 보내지는데, 그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기에 보내기에 이상적인 사람이며, 매우 개방적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바나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서 보시겠습니까? 그는 사실 엄격한 유대인의 사고에 제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열려 있습니다.

23 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그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은혜의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여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있으라 하니,”** 지금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예수님을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 붙어있으라고 안디옥에 있는 자들을 권면하는 바나바도 여기 있습니다.

24 절 “이는 바나바가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라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지더라.” 이교도의 도시, 안디옥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25 절 “그 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찾다’는 헬라어의 뜻은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나바는 이방인 가운데서의 역사를 보았기에, 바울이야말로 와서 거기를 섬길 가장 이상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깨달았지만, 바울을 만난 지가 벌써 7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을 때,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는데, 3년 동안 성령님의 지도가 있으셨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다마스쿠스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왔으나, 선동과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평화를 목적으로 그들은 바울을 다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다소에 가 있었으니, 회심 이후 10년 동안 그의 사역은 시작되지 못했음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후, 즉시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것 좋아요,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우는 동안 광야에 있게 할지라도 낙심은 하지 마세요. 단지 당신을 그 분께서 한 동안 학교로 데리고 가서, 훈련시키고, 준비를 시키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사역을 위하여 이상적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헬라 문화의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났고, 일찍이 헬라 문화에 대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베냐민 지파로서 하나님과 율법에 헌신된 아버지가 있었고, 예루살렘 대학에 보내져,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를 뛰어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구절의 히브리 교육도 있었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자, 구약성경 전체가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구절을 볼 수 있었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구약성경으로부터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은 성경구절에 익숙한 사람이 필요했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인의 배경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를 만들 때부터, 태어남, 어린시절, 헬라 문화의 시절, 히브리 성경구절의 공부 등, 모든 것을 그분의 손 안에 두셨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모든 길을 따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을 알고 있는 - 만났고, 소개했던- 그는 그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데려가는 곧, 중재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그는, 음! 이것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바울이야! 나는

그를 찾을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종 우리가 전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는지 돌아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배경과 그들에 대한 것을 약간 알게 되는데, 수년

뒤에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오면, 그들이 그것을 위해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즉석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사실 사람들에게 대한, 그들의 달란트에 대한, 그들의 수용력에 대한 한 묶음의 명함철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가 생길 때, 나는 가서, 예, 그것이 완벽하군요!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군요. 그리하여 당신이 그들의 배경을 알기 때문에, 사역에 있어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원활히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당신이 알죠. 가끔은 몇 년이 지난 뒤에 상황을 보고, 그들이 이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속하지도 않고, 거기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는, 바울이 그 책임자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소로 가서, 그를 찾았던 것입니다. **26 절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데려와 그들이 일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임을 가지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은 주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고, 바나바는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일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역의 다양한 요소들,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올바른 삶을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 주님의 방법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일년 내내 그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큰 교회였지만,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가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곳이기도 하며, 헬라어와 라틴어의 조화가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헬라어, ‘크리스토스 *Christos*’는 라틴어 어미, ‘안티오스 *antios*’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Christianity*)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합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갖는데 결정적인 일을 했다는 것인데, 로마제국 시대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지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안디옥에 오자,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염소’라고 불렀습니다. 분명히 그는 염소와 같이 보였을 턱수염을 가졌기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염소라고 불렀으나, 여기 그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소하는 의미에서 부르는 이름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취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 당신이 알다시피, 신문이 그것들에 대하여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변덕쟁이들’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예수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 조소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의미되었지만, 믿는 자들은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골라잡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인지되는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름이 안디옥 거기에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27 절 “그 무렵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한층 더한 사역으로,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보나요? 예루살렘에서 온 대언자가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것입니다. 음, 그 대언자들은 방랑자와 같은 사람으로, 이곳저곳을 돌아 다녔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사를 실행하려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돌아다니던 대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대언의 은사는 예언하는 것일 수 있거나, 미리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대언하는 그가 교회에게 교화로, 권면으로, 위로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왔을 것이므로, 그들은 교회에 권위와 위로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거짓 대언자들도 그 주변에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초대교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 년도 안되는 시점에, 초대교회는 디다케(Didache)라고 알려진 사도들의 가르침과 같은 것을 펴냈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대언자가 되겠다고 자신을 선언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정한 규칙을 제공해 주는 책인데, 그들이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와 기본적으로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그들이 정해 놓은 그 지침은 매우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들어와서 헌물을 가져가면, 거짓 대언자다! 만약 그가 하루 이상 머물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거짓 대언자다! 만약 가난한 자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야만 하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문했다거나, 비용을 교회에게 부담케 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들은 그를 먹여야 했고, 그들은 그를 하루 밤 보호소에 두어야 했으나, 그때 그가 옮겨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는 거짓 대언자로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그 당시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28 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자, 이 책의 나중에 가서 아가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름을 서류철에 보관해 놓기 바랍니다. 약간 나중에 그에게로 가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언자가 서서,) **“성령을 통해”** (이 대목이, 대언은 장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표적으로 보여 주기를 온 세상에 두루 큰 흥년이 들리라 하더니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렇게 되니라.”** 이것은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통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29 절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30 절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부터 헌금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 초대,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로부터 약 12 년 뒤에, 공동생활을 실행한 결과로 교회의 재정적 문제가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 돈을 내놓았던 곳이 아닙니까? 그것은 조직에 대한 피라밋 방식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투자자들 만나야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 나쁘게 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라기보다 단지 감정과 흥분이 더 큰 동기가 된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유를 팔든지, 혹은 그냥 지갑을 꺼내라고 주문한 말씀이 아무 곳에서도 없습니다. 단지 자발적으로 했을 뿐이지요.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어 얻은 것들이 많습시다마는, 한 사람이 그것을 하면, 모든 사람들은 오..., 아.., 저것 보았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아요? 그들이 내 쪽으로 오.. 아.. 하기를 바라니, 당신은 따릅니다. 오..., 아..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 것을 얻으니, 그들도 따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아시지요, 그들은 팔아, 재물의 일부만 가져왔는데도, 그들은 그것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했죠. 여기에 위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네가 그것을 가졌던 동안에, 그것이 네 것이 아니었더냐?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그것을 팔라고 하더냐? 라는 것인데, 분명히 그 대답은, 아니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팔았을 때, 누가 어디로 모든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느냐? 대답은, 아니오! 라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시다. 그들의 죄는 뒤로 감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밀리에 뒤로 감추고서도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한 것입니다. 혹은 그것은 위선이었으며, 교회의 저주였기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벌써 재정적인 곤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 책의 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를 위하여 구호금을 모으려고 모든 이방인 교회에 가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이 일들의 과정을 보면서, 먼저 일어난 것과 이어서 각각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묶여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패턴을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함께 움직이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일들을 연결되게 하여, 교회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지시하고 계십니다. 스테반의 죽음의 고난과 이어진 박해는 복음을 퍼트리는 원인이 되었고, 사람들이 안디옥과 키프러스와 베니게와 같이 먼 곳으로 간 것, 이 모든 것은 스테반과 묶여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에서, 그는 거기서 스테반을 보고 있었고, 스테반에게서 배웠으며, 그가 돌에 맞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었으며, 이제 그의 마음과 양심에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주님은 바울을 멈추게 하시어 그에게 가시채찍을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때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가면서 그를 위하여 앞서 달려가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했으며, 바울을 알고, 바울의 배경을 알고, 그가 다소로 진로를 바꾸므로 가이사랴까지 바울과 동행했고, 그는 바울에 대해 알고, 바울의 그릇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묶어 일하시고, 각각의 사건은 과거의 어떤 것에 묶여 있습니다. 당신이 그의 나이라면, 매우 흥미로웠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데, 만약 아득하다면, 돌아 볼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따라 사건들과 상황들을 어떻게 얽히게 하셨는지를 보는 것도 매우 흥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 당시는 알 수 없는 일들과 그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역했던 어떤 시간들의 일들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돌아보니, 보고 나서, 예!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이룩하셨군요, 그 분이 나를 여기에 두기 위하여 거기에 나를 있게 하셨군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일이 어떻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의 구세주가 나를 인도하는 모든 길에서 내가 곁에서 물어 볼 것이 무엇인가!’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길을 따라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여기 사도행전에서 각각의 사건이 다른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역의 다양성을 사용하셨는지,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주님을 가르치는 것, 권위 하는 것, 가르치는 것, 대언하는 것-사역의 다양성입니다. 그러나 한 몸이고, 한 교회이며, 한 주님이고,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속에 계시고, 너희 모두 안에 계신 한 하나님이십니다(엡 4:4-6). 하나님께서 그의 몸, 교회를 세우시는데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우리는 한 부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스틸이 있습니다. 이는 역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각 사건은 지난 사건과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역사에서 그분의 손길은 모든 방법에 있다는 말이지요.

아버지, 당신의 백성 안에서 그리고,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태초부터 교회의 활동을 인도하셨고 지시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일들을 함께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접촉하시고 저기를 느끼십니다. 당신의 시간과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오늘날 당신의 역사를 볼 기회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단지 약속하신대로 당신의 교회를 세워 주시도록 당신에게 열려 있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인도에 열려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몸, 교회의 머리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가 듣기 위하여 또한 여기 있나이다. 당신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지시와 주문을 받기 위하여, 그리하면 당신은 지키실 것이며 지시하실 것입니다. 주님, 교회의 모든 말씨와 활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